

# 10년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새로운 투자길 열려”

산업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시행 회계·세무·기타금융투자업 등 포함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 자금 조달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안동시 풍산읍 일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임차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

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랩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차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발굴·판로개척 박차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상담회 11일 오크우드 코엑스 센터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서울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24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유력 바이어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농기자재는 스마트팜·동물용 의약품 등과 함께 농식품 분야의 전후방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전략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후방산업과 K-푸드를 합친 ‘K-푸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이 행사에는 인도·파키스탄·태국 등 14개국 소속 유력 구매업체 20개사를 비롯해 비료·친환경농자재·시설자재 등 국내 수출기업 30개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총 160여 회 이상의 일대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상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지원해 왔고, 최근 계약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유기농액비·비료·스마트팜 자재 업체들이 참가해 상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23일 충북 충주의 한 논에서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하고 있다. 이 농기계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뉴시스

액 6000만 달러, 800만불 규모(8건)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수출상담회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에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성공 사례와 수출상담회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출상담회 종료 후에도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사후상담을 지속 추진해 후속성과 가나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력 진성 구매업체(바이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구매업체 규모, 운영중인 유통 및 판매 채널, 한국과의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수출기업 공유 및 수출상담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31일에는 ‘2024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와 연계해, 농기계 및 시설자재 등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대구 엑스코(EXSCO)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말레이시아서 인삼·딸기 등 ‘인기 만점’

17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17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딸기와 인삼 등의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농식품부와 aT는 충남과 경북 등 수출 주력 지자체 및 우수 수

출기업 10여 곳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했다. 한국관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K-푸드인 딸기, 인삼, 건강기능식품, 김치 등을 선보였다.

특히,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위해 3월부터 박람회 주최사와 연계해 한국관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다. 행사 개최 2주 전에는 현지 주요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사전 온라인상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전 상담으로 연

결된 현지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가 박람회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한국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업체별 디렉토리북 제공, 전문 MC를 활용한 시간대별 제품 홍보와 시식행사 등을 진행해 참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방문객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각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 MC의 생동감 넘치는 설명과 현장 시식회 참여로 K-푸드의 매력에 빠졌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귀농귀촌플랫폼 ‘그린대로’ 가입자 4만명

농식품부 “플랫폼 성공적 운영” 평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 중 1000명 넘게 귀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9일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년간 방문자 수는 총 5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1만6397명이 방문했다. 주요 매뉴얼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가기·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31.5%)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만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 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52.8%)을 기록했다. 또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단양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뉴시스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청년이 전체(767명)의 46%(353명)를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총 1079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동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11년 역사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막

해수부, 크루즈 산업 활성화 논의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매년 아시아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핵심관계자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2013년 1회 포럼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성장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크루즈의 트렌드와 협력’,

‘선사가 바라본 한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도전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세션 및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지역 운영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또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 선사 간 공식 비즈니스 미팅과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공유한다. 관련 국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크루즈 발전 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